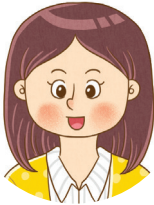




일상생활 속의 잘못 쓰는 말을 바르게 써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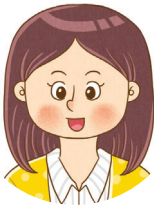
_____학년 _____반
이름 _____

1 희수 어머니와 희수의 대화를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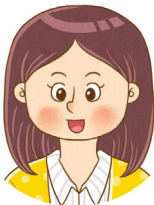
우리 희수가 일기를 쓰고 있구나.

네, 엄마. 오늘 미술 시간에 있었던 일을
쓰는 중이에요.
(계속 일기를 쓰며)
그런데 엄마, '널판지'라고 적는 것이
맞아요? '널빤지'라고 적는 것이 맞아요?



글쎄, 희수가 생각할 때는 뭐가 맞는 것 같니?

널판지..... 널빤지.....
정말 헷갈려요.



널빤지가 맞단다. 일상생활에는 '널빤지'를
'널판지'로 잘못 쓰는 경우가 많단다. 혼동되는
낱말이 많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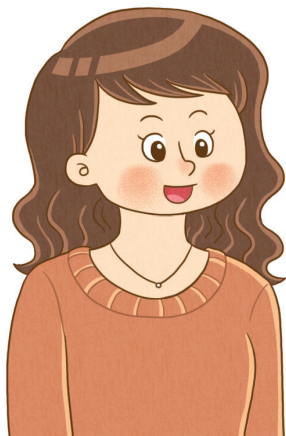
앞으로 그런 낱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1) 희수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 (2) 희수가 잘못 쓸 뻔한 낱말은 무엇인가요?
- (3) 희수와 같은 경험을 해 본 적이 있나요?



2 잘못 쓰는 말을 바르게 쓰려면 어떻게 할까요?



잘못 쓰는 낱말이 있는 경우 국어사전을 찾아보는 것은 좋은 방법이에요. 국어사전에 있으면 맞춤법이 맞는 낱말이고, 없으면 틀린 낱말이에요. 둘 다 국어사전에 나오는 경우는 의미를 파악해서 상황에 알맞게 사용하도록 해요.



3 다음 낱말 중 국어사전에 나오는 낱말에 ○표 하고 낱말의 뜻을 써 봅시다.

꿀볼건

꿀볼건

뜻:

깍뚫하다

깍뚫하다

뜻:

넌즈시

넌지시

뜻:

뽀리

또아리

뜻:

4 3에서 ○표 한 낱말을 이용해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 낱말 | 내가 만든 문장 |
|----|----------|
| | |
| | |
| | |
| | |



5 잘못 쓴다고 생각되는 말을 쓰고 국어사전에서 찾아봅시다.

| 잘못 쓴다고 생각되는 말 | 국어사전에서 찾은 말 |
|---------------|-------------|
| 예) 쭈꾸미 | 예) 주꾸미 |
| | |
| | |

6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놀이를 해 봅시다.

